

요약문으로 본

독도의 역사 1500년-2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편)

*독도의 역사 개관-2

(1,2에 이어서)

3. 조선시대-2(일본 에도시대)

1) 1625년경, 일본의 무사정권 도쿠가와(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가 문에게 ‘울릉도도해면허’를 내렸다. 일본 측은 이 도해면허가 일본 내의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면허였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측은 이 면허는 외국으로 갈 때 내주는 주인장(朱印狀) 같은 면허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은 현재까지 일본국내의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갈 때 나주었다는 울릉도도해면허 외의 도해면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㉞ 도쿠가와(에도) 막부 : 막부란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뜻이고 도쿠가와(에도)는 도쿠가와씨의 씨명, 에도는 현재의 도쿄를 말한다. 보통 에도막부라고 부른다. 에도(도쿄)에 있는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뜻이다.

㉞ 일본에선 19세기 중반까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 죽도),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 송도)로 불렀다.

2) 1660년경,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이 독도로 건너가는 순번을 정했다. 일본 측은 이것이 에도 막부가 독도도해면허를 내준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독도(송도)도해면허 자체는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1660년 이전에도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독도에 들렀다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독도는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들렀다는 얘기지 독도자체에 도해면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일본 측이 ‘독도도해면허’를 고집하는 이유는 1696년 울릉도도해면허는 ‘울릉도도해금지령’으로 무효가 되었으나 ‘독도도해면허’는 계속 유효였다는 왜곡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3) 1667년, 이즈모(出雲=현재 시마네현 북쪽의 도시)의 관리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은주시 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관찬서를 펴내 일본의 공문서로는 처음으로 독도(송도)를 기록했다. 그리고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문서로 이즈모의 관리는 일본영토의 북서쪽 한계를 울릉도로 정했다, 즉 울릉도까지 일본영토로 정했다고 왜곡시킨다.

4) 1692년 3월, 무라카와(村川)가의 배가 울릉도로 도착했을 때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무라카와의 배들은 울릉도 상륙을 포기하여 돗토리번으로 돌아갔다.



5)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은 1년마다 번갈아 울릉도로 도해했다. 그들은 조선에서는 울릉도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덧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1693년 오야가문이 울릉도로 도해하는 차례였다. 1693년 3월, 오야 가문의 배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1692년 무라카와 가문이 도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2년 연속으로 그대로 돗토리번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오야 가문 어부들이 울릉도로 상륙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안용복과 또 한 사람(박어둔)을 납치해 일본으로 연행했다. 이렇게 안용복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일간에서 울릉도분쟁 즉 ‘울릉도 쟁계(=일본 식으로는, ‘다케시마 일전’)’가 시작되었다.

6) 1693년, 조선의 영의정 남구만이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일본의 대마번 관리 곽진중과 논쟁을 벌였다. 남구만이 일본에서 죽도(=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울릉도는 조선땅이니 일본어부들이 울릉도로 절대 건너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곽진중이 반박을 여러 번 했으나 대마번주가 사망하여 대마도로 돌아가 대마번과 조선왕조 간의 논쟁이 종식되었다.

7) 1694년, 조선관리 장한상(張漢相)이 울릉도를 수색하여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을 서술했다. 그 속에서 그는 독도를 목격한 내용을 기록했다. 조선왕조는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약 180년만에 울릉도로 관리를 파견했다.

8) 에도막부는 대마번으로부터 울릉도 쟁계의 결말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1696년 1월, 일본의 돗토리번(鳥取藩) 영주는 에도막부에게 울릉도·독도는 돗토리번의 부속이 아니며 일본의 어떤 지방의 부속섬도 아니라고 보고했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섬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9) 이렇게 하여 돗토리번의 보고를 받은 에도막부는 1696년1월28일, ‘울릉도도해 금지령’을 돗토리번으로 하달했다.

10) 1696년5월, 안용복이 울릉도로부터 독도와 오키섬을 거쳐서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오키섬에서 돗토리번으로 갈 때 그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조선의 고위관리를 자칭했다. 그는 오키섬 관리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1) 1696년7월, 에도막부는 조선관리가 도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울릉도도해 금지령’을 돗토리번에 하루속히 전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12) 1696년8월, 안용복 일행은 동해를 건너 강원도 양양으로 귀국했다. 그들 일행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비변사로 연행되었다.

13) 1699년 10월, 대마번주가 ‘다케시마 일건(울릉도 쟁계)은 모두 끝났다(竹島之一件無殘相濟)’고 에도막부에 보고했다. 이것으로 안용복 납치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 울릉도 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 과정에서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독도, 안용복은 자산도<子山島>로 표현)가 조선땅임을 주장하였고,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지킨 공로를 왕조에서 인정받았다. <속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